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인본주의적 소통

— 황순원의 전후소설을 중심으로 —

이 호(중국산동사범대)

〈목 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1. 서론

맑스와 엥겔스는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이라고 정의한다. 허위의식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의 근거에 자리 잡은 진짜 동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신에 가짜 동기를 상상하며, 그리하여 사회 현실을 왜곡하고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에 상징적 해법을 제공한다. 즉, 이데올로기는 사회 현실을 왜곡하고,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모순을 상징적으로 해소하려 하는 사회적 표상형식이다¹⁾.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6·25 전쟁 전후에는 북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남한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민주주의는 38도선의 설정과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더

1)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하)』, 2006, 642면.

대립되고 격화되어 갔다. 그 결과로 동족상잔의 6·25전쟁은 발발했고, 이러한 전쟁은 막대한 인적, 물질 피해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은 한민족 전체에 커다란 슬픔을 안겨다 주었다. 전쟁의 상처로 인해 남북한의 동족 상호 간에 원한과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증오심이 확산되었다.

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로는 김문수, 이봉일 등이 있는데, 김문수²⁾는 이데올로기를 소집단이나 전체 사회의 사람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바탕으로서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를 정당화해 주거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전쟁기 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 양상을 ‘이념 충돌로서의 한국전쟁과 형제 살해의 비극’, ‘2.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과 전향 모티프’, ‘3.기회주의적 이념선택과 생존의 방식’, ‘4.이념 대립의 무위성과 동족의 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봉일³⁾은 전쟁을 겪은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에 대해 피해의식에 젖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데올로기를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며, 개인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신적 도구로 보아야 함을,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에 대한 언급은 유학영, 신영덕 등에서 보인다. 유학영⁴⁾은 황순원 전후소설의 이데올로기 인식의 비판은 주로 다음 세 가지 통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첫째로 이데올로기로 인한 것이지만 그것과 무관한 민중의 희생을 통해서, 둘째로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혹은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우정이나 민족애의 발로를 통해서, 셋째로 민족애에서 보다 더 승화되고 보편화된 인간적인 동료애, 즉 휴머니즘의 발로에 의해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신영덕⁵⁾은 황순원의 전쟁소설에 대해 현실 속에서 좌우 이데올로기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도적 태도로 전쟁을 객관화하여 보여

2) 김문수, 『한국 전쟁기 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 양상 연구』, 『우리말글』 제18집, 1998.

3) 이봉일, 『전후소설과 이데올로기의 상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4) 유학영, 『1950년대 한국전쟁-전후소설 연구』, 북폴리오, 2004, 61면.

5) 신영덕, 『전쟁과 소설』, 역락, 2007.

주고 있는 점이 황순원 전후소설의 의의라고 말하고 있다.

황순원은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살았던 작가로, 역사의 일부인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가장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작품으로 표현하였고,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소통의 접점을 찾아,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그 소통을 형상화 하였다는데서 작품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황순원의 작품 가운데 단편집 『학』, 『잃어버린 사람들』, 『너와 나만의 시간』, 장편 『카인의 후예』, 『나무들 비탈에 서다』 등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치와 그로부터 빚어지는 갈등과 인간의 인격적 만남이 소멸되는 시대와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그 소통을 보여주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이를 화해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므로 황순원의 문학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초월하려는 도피의 문학⁶⁾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 문학이다.

본고에서는 황순원의 전후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대립 양상과 소통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아직도 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 상태에 처해 있는 남북 관계개선에 현실적인 의의가 있으며 시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본론

황순원의 소설은 6·25전쟁을 전후로 하여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6·25전쟁 이전(한국전쟁기 포함)의 소설은 속악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 자신의 희망, 순수한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면, 6·25전쟁 이후의 소설에서는 이상세계에 대한 희망보다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한국전쟁의 피해와 성격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쟁은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남긴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일단 중지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해 경직된 이데올로기는 감정의 차원으로 폭넓게 정착하게 된다. 전후시기에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는 지배집단의 차

6) 이태동, 『실존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 『현대문학』, 1980, 5면.

원에서나 피지배집단의 차원에서 모두 ‘생존의 논리’였다. 지배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반공주의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피지배집단은 육체적, 사회적 생존을 위해 반공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반공주의는 생존을 위해 위로부터 강요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래로부터 수용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민중과 작가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주체성을 상실하고 점차 반공에의 선택을 강요 받는다. 왜냐하면 좌익이라면 그 가족 친지까지 무조건 검거 처단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빨갱이 협조자’, ‘동조자’, ‘앞잡이’의 누명을 씌워 학살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반공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임을 터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작가들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직·간접적으로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비해, 황순원의 전후소설은 이념과 전쟁을 배경으로 삼지만 반공주의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에(人間愛)’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황순원의 전후소설은 좌우 이데올로기에 대한 편향 없이 가능한 한 중도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객관화 하고 그 소통 방안을 모색하였다.

1)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전쟁의 비인간성

6·25전쟁은 작가들의 시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소설로 형상화되었다. 작가 황순원에게 있어서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충격으로 작용했으며 이 전쟁이 결과적으로 분단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6·25의 전쟁 체험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커다란 억압 관념으로 자리잡게 되고 동시에 그의 문학세계에서 뚜렷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게 된다⁷⁾.

단편집 『곡예사』(1952), 『학』(1956), 『잃어버린 사람들』(1958), 『너와 나만의 시간』(1964)은 이념 대립으로 인한 6·25전쟁이 발발한 시기 전후로 지어진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 만큼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잘 드러나 있는 단편소설들이 많이 수록되어 현실에서의 고통이 어떠한지 말해 주고 있다.

7) 장현숙, 『황순원 문학연구』, 푸른 사상, 2005, 157면.

황순원의 작품은 특히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의 폭력성과 이로 부터 비롯되는 순수하고 소박한 삶의 분열과 파괴 양상을 중점적으로 드러냈다. 그의 「학」, 「산」, 「소리」 등 단편소설들은 시골을 배경으로 소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의 인간 상실과 전쟁의 폭력성을 대비시켜 드러냈다.

단편 「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단짝동무인 성삼과 덕재가 전쟁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대립적인 입장에 나서게 되었다. 농사만 짓던 그들은 전쟁 중에 각각 국군과 농민동맹 부위원장으로 변신했다. 성삼이의 이미지와 덕재의 이미지를 통해 남과 북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상징화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성삼이와 덕재의 대립은 성삼이가 덕재를 포승줄로 묶고 호송하는 과정에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과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던 농촌 공동체가 전후 이념에 의해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분열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평등을 가장한 이념적 현실은 그들에게 지배 아니면 복종의 태도를 취하도록 강요한다. 성삼과 덕재는 그들의 자연적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개별화된 존재로서의 분리감과 고립성을 극복하는 대신 자신이 복종하는 권력, 즉 이데올로기의 힘의 위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소설 「산」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전쟁의 비인간성을 잘 보여 주었다. 주인공 ‘바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산속에서 산다. 도토리를 채집하거나 작은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사는 순박한 인물이다. 어느 날 바우는 도토리를 줍다가 인민군 패잔병과 만난다. 그들은 바우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강요한다. 바우가 순수의 세계를 상징한다면 인민군 패잔병들은 전쟁이라는 폭력적 세계를 표상한다. 바우는 사람을 쉽게 죽이고 약탈하고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념의 잔인한 힘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인간적 태도이다. 순진무구한 바우의 눈에 최초로 비친 외부의 세계로서의 전쟁은 인간을 짐승처럼 바꿔 놓을 수 있는 공포의 힘 바로 그것이었다. 사소한 개인의 이기적 욕망 앞에서 너무나 쉽게 인간 생명을 살상하는 인간 경시와 반인륜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패잔병들 사이에서 바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전쟁의 폭력 앞에 분열되는 인간을 보게 된다.

장편소설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작가 황순원이 이데올로기 전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이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주제의식은 이데올로기 전쟁의 잔혹함과 파괴력은 인간의 내면에 가해 짐으로써 한층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현대는 새삼스럽게 동호가 자살하기 바로 직전에 한 말을 되짚어 보았다. “대체 우린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내가 보기엔 이번 동란에 나왔던 젊은이들은 죄다 피해자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나 현대는 이 동호의 말에 대답이나 하듯이, “정말 그럴까. 난 기해자두 될 수 있다고 보는데.”⁸⁾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동호, 현대, 윤구 등은 숙, 미란, 옥주, 계향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가해자가 된다. 전쟁의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황순원의 논리는 한국전쟁의 관점에 적극적으로 투영된 것이다. 즉, 한국전쟁은 어떠한 형태로든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전쟁의 피해자는 또 다른 형태의 가해자가 된다는 것으로 전쟁의 상처가 1950년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2)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인간성의 변모

황순원의 전후소설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비롯된 인간성의 변모 양상을 여실히 드러나 있다. 그의 단편소설 『소리』에서는 성실하고 근면했던 인물인 농사꾼 덕구가 전후 완전히 변해 버린 모습을 대비하여 인간 상실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전쟁 전의 덕구의 모습은 순박하고 인색한 농사꾼의 전형적인 모습이였다. 그러나 전쟁터의 수많은 무의미한 살육과 인간의 잔혹함을 보면서 그는 서서히 변해 간다.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개별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자신을 가치 있게 외계와 관련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덕구는 점점 더 자신을 파괴적으로 외계와 동화시켜 간다. 전우의 시체를 보고 울던 그가 시체를 나무토막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을 만큼 전쟁에 익숙해져 갔다.

8) 황순원, 『황순원전집』 7권, 문학과지성사, 1990, 357면.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인간성의 변모라는 주제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황순원의 작품이 바로 장편소설 『카인의 後裔』⁹⁾이다. 황순원이 명실공히 장편소설가로서 평가받는 기점은 바로 『카인의 後裔』(1954.12)를 발표한 이후이다. 이 작품은 해방 후 북한의 토지개혁을 배경으로 농민과 지주의 계급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그로 인해 인간성이 변모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동시에 자유와 생명과 사랑을 통한 인본주의를 추구한 작품이다.

『카인의 後裔』는 북한에서 실시되었던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지배계급인 지주 박훈의 가족,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고리 역할을 하던 마름 도섭영감과 그의 딸 오작녀와 그녀의 남편, 피지배계급인 소작농민들의 계급간의 갈등과 애증을 보여준다. 이십여년 동안이나 지주에게 충성을 다한 마름 노릇을 하고 지배계급의 권위를 이용해 소작인에게 지나칠 정도로 가혹했던 오작녀 아버지 도섭영감이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지주계급을 타도하자고 지주 숙청사업에 누구보다도 앞장선다. 지주를 위해 소작인들에게 꽤나 모질게 대했던 그가 이제는 거꾸로 소작인들을 위해 무자비한 지주 숙청 작업에 앞장섰다. 그러나 도섭영감 자신도 결국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해방 전에 반동 지주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농민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것이 숙청을 당한 이유였다. 인간보다 이념이 맞서는 시대, 어제의 미덕이 오늘의 죄악이 되는 시대 아래 인간들은 빠르게 변모한다.

도섭영감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타협하는 전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에게 자기 자신의 의지는 없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우월한 외부적 힘에 전면적으로 일체화시키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외부적 힘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현실에 적응하기만 바쁜 수동적 인간이다. 그에게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은 없다. 도섭영감은 이 소설의 제목처럼 ‘카인’을 대변한다.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이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은 모두 카인들이라 할 수 있다.

9) 『카인의 後裔』는 남한에서 발표된 50년대 작품 가운데 드물게 해방 이후 북한의 토지개혁을 소재로 담고 있는 한국 50년대 소설의 대표작이다. 『카인의 後裔』는 제1회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작가에게 안겨주었고 1968년에는 영화화, 1975년에는 英譯되었다.

3)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인본주의적 소통 방식

인본주의는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넓은 범위의 정신적 태도, 세계관, 혹은 사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써 인간과 인간성을 왜곡, 억압하고 속박하는 모든 사상과 제도와 조건과 세력에서 인간을 해방하고 인간성을 옹호·육성·발전시켜서 인간성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인간 긍정의 사상, 인간 신뢰의 태도, 인간 해방의 노력, 인간 옹호의 운동, 인간 존중의 정신이고 인간 존엄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황순원 소설을 논의한 연구가 많다. 김종회¹⁰⁾는 황순원 문학을 인간의 정신적 아름다움과 순수성,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출발했고 이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켰으며 황순원 작품에서 배경으로 되어 있는 상황의 가열함 속에서도 진실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암중모색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장현숙¹¹⁾은 황순원의 문학을 관류하고 있는 공통된 주제의식은 바로 생명존엄사상, 모성의 절대성, 그리고 인간 구원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이 작가 황순원이 생명주의, 인도주의, 자유주의, 영원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한다.

황순원 문학의 근저에 놓인 것 가운데 하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다. 그의 전후소설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고 옹호하는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소통시키고 있다. 단편소설 『鶴』은 좌우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우정으로써 극복하는 인본주의를 보여준 작품이며 전쟁의 무모함이나 잔혹성을 고발함으로써 전쟁의 비인간성과 반 윤리성을 드러내는 ‘휴머니즘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성삼이와 덕재는 각각 국군이나 농민동맹부위원장장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래적인 이데올로기의 힘에 이끌려서 서로를 부정하고 대립하게 된 것이다. 작가의 관심이 좌우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기보다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초월하는 그들의 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삼이가 덕재에게 학사냥을 제안하는 결말에서 이성과 사랑의 발전을 통한 보편

10) 김종회, 「전란의 시대와 황순원소설의 인본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집, 2003.

11) 장현숙, 『황순원 문학 연구』, 푸른사상, 2005.

적인 형제애가 구현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단정학’, ‘높푸른 가을 하늘’, ‘유유히’ 등의 표현은 이데올로기가 빚은 갈등의 현실 상황을 뛰어넘는 우정과 생명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념이 인간을 지배하는 분열과 대립의 세계와 진정한 인간애를 추구할 수 있는 평화와 화해의 세계의 대립 구조 속에서 조화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작가의 의지를 발견하게 된다.

『카인의 後裔』에서는 마름의 딸 오작녀와 지주의 아들이요 농촌 계몽운동가인 박훈은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극복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박훈이 살아 남아 월남을 결심하기까지 오작녀의 사랑은 절대적 힘으로 작용한다. 오작녀의 사랑은 계급을 초월한다. 이념을 넘어서는 순수한 사랑은 진정한 자유와 대등한 의미와 무게를 갖는다. 이들 인물들이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계급간의 심리적 갈등과 인간 존재의 한계를 사랑으로 초월한다. 두 남녀의 체제로부터의 탈출 시도는 봉건 신분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시대에 참된 자유를 추구하는 가치관의 정립을 상징한다.

그리고 황순원의 『포화 속에서』는 드물게도 인민군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면서도 인민군을 적대자모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소중한 생명을 지닌 한 인간이라는 시각에서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은 후에 『목숨』이라고 개제하여 전제된 바 있듯이 전장의 극한상황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온갖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희생되어 갈 수밖에 없는 개인의 모습을 통하여 전쟁의 비참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농사꾼 강서방과 소년병은 인민군 본대(本隊)에서 떨어진 낙오병이다. 그들은 어느 굴속으로 간신히 피신한다. 얼마 남지 않은 콩가루와 생쌀을 씹으며 며칠 밤을 보낸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갈증을 견디다 못해 물과 살길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물을 발견하지만 소년은 결국 죽어 간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떠올린 것은 고향과 눈먼 어머니다.

“아즈반, 아즈반이 고향에 돌아가시든 꼭 우리집에 찾아가 봐주시쇼. 바로 강동읍에서 서쪽으로 한 이십리 떨어진 오류동이란 동네입니다. 게 가서 앞 잘

못 보는 이를 물으론 곧 알 수 있을거야요. 그래 만나거든 내가 죽지 았구 잘 았다구 던해 주십시오……”¹²⁾

강 서방은 숨이 넘어가는 소년을 업고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사람 살려라!’고 부르짖으며 내달는다.

이 소설에서 강 서방과 소년으로 지칭되듯이 그들은 계급도 없고, 싸울 총도 처음부터 지급 받지 못한 채, 전선으로 무작정 내몰린 비정규군이다. 말하자면 육탄전이나 소위 총알받이로 전투에 투입된 소모품이었다.

작품의 말미에 1951년 4월에 탈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미 남침과 북진을 거듭하면서 남·북한 쌍방이 엄청난 인명 희생을 치르고 난 뒤 장기적 소모전에 돌입했을 때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이와 같이 적이든 아군이든 인명 살상의 비극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강 서방은 소년에게 얼마 남지 않은 생썰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쓰러진 소년을 끝까지 부축해 가기도 한다. 그리고 가는 길에 쓰러져 죽어 가는 또 다른 인민군을 업고 가서 물을 먹이기도 하며, 그 인민군이 끝내 죽어 버리자 그의 피 묻은 생썰 주머니를 가로채기도 한다. 강 서방의 이와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의 행동을 두고 ‘전장과 휴머니즘’이란 거창한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자신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요, 죽어 가는 이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만 있을 뿐이다.

이 소설은 전장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면서 대개의 경우와는 달리 거기에는 이념도 없고 적과 아군도 없으며 애국심도 없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며 그것을 앗아가는 것에 대한 분노만 있을 뿐이다.

황순원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한쪽의 다른 한쪽에 의한 편입, 또는 도피나 지속되는 대치 상황이 아닌 인본주의를 통하여 소통시킨다. 다시 말하면 황순원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구조 자체를 가로 지르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황순원의 「목숨이 마을의 개」, 「학」, 「너와 나만의 시간」, 「나무들 비탈에 서다」 등 전후소설에서는 이데올로기 대립에 대한 인본주의적 소

12) 황순원, 「목숨」, 『곡예사』, 명세당, 1952, 45면.

통 방식이 나타난다. 작품에 등장하는 간난이 할아버지, 성삼이, 주대위, 숙이라는 인물들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추구하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인본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3. 결론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황순원의 전후소설들은 전체적으로 전쟁이라는 갑작스런 재난이 얼마나 인간의 행복을 순식간에 짓밟아 버리고 피를 흘리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쟁은 인간을 쉽게 분열시키고, 인간성을 마비시키고 파괴하고 있음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황순원의 전후소설에서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주제의식은 이데올로기 전쟁의 잔혹함과 파괴력은 인간의 내면에 가해짐으로써 한층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황순원의 작품 속에서 한국전쟁이 제기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며 굴절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이데올로기의 서로 다른 인식으로 말미암아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분열, 또는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학」에서 다 같이 농사꾼의 아들인 ‘성삼’과 ‘덕재’가 전쟁 이후에 ‘성삼’은 치안대원이 되고 ‘덕재’는 농민동맹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둘째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들의 대립상을 다루기보다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순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되어 갔는지를 통해 한국전쟁의 비극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황순원의 전후소설에서는 전쟁이 비극적인 불행의 심도를 더하는 것은 피해자인 인물들이 모두 순박하고 선량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쟁의 근원이 된 이념과 아주 동떨어진 사람들이다. 이념을 이해할 지적수준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느닷없이 찾아온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갖가지 불행을 감당하는 자들일 뿐으로서 일방적인 희생양이다. 전쟁은 소수의 독단에 의해 그들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다수의 불행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휴전 이후 황순원의 전후소설은 좌우 이데올로기에 대한 편향 없

이 가능한 한 중도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전쟁의 피해상을 객관화하여 보여줌으로써 한국전쟁이 아군과 적군, 가해자와 피해자, 나와 타인, 선과 악의 차이를 무화시킨 동족간의 비극적 전쟁이었음을 깊이 인식케 한다.

그리고 황순원은 인본주의적 태도로 이데올로기로 인한 전쟁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보편적인 인본주의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소통시킨다는 사실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황순원의 전후 소설은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인간 삶의 의미를 들어내는 데 있어서 인간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그의 소설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고 옹호하는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극복하고 소통시켰다. 황순원에 의하면 이데올로기의 대립 상황이나 또는 일상의 극한 갈등의 상황은 대립에서 도피하거나 또는 폭압으로 다른 한 쪽을 편입해 버리는 방식이 아닌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근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가치를 통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황순원의 문학사상은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대립 상태에 처해 있는 남북 관계개선에 현실적인 의의가 있으며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문수, 『한국 전쟁기 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 양상 연구』, 『우리말글』 제18집, 1998.
- 김종희, 『전란의 시대와 황순원소설의 인본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집, 2003.
- 신영덕, 『전쟁과 소설』, 역락, 2007.
- 유학영, 『1950년대 한국전쟁·전후소설 연구』, 북폴리오, 2004.
- 이봉일, 『전후소설과 이데올로기의 상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태동, 『실존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 『현대문학』, 1980.
- 장현숙, 『황순원 문학연구』, 푸른사상, 2005.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하)』, 2006.
- 황순원, 『목숨』, 『곡예사』, 명세당, 1952.
- 황순원, 『황순원전집』 7권, 문학과지성사, 1990.

【국문초록】

황순원의 전후소설은 그 이전 소설에서 흔히 나타난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과 희망보다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한국전쟁의 피해와 인간성의 상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황순원의 전후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인본주의적 소통 방식을 고찰하면서 황순원 작품의 인본주의적 성격을 분석해 봤다.

한국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동족상잔의 전쟁이지만 황순원의 전후소설은 좌우 이데올로기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데올로기 전쟁을 객관화하여 비판하였다. 그의 「학」, 「산」, 「소리」 등 단편소설들은 주로 소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의 인간 상실과 전쟁의 폭력성을 대비시켜 드러냈다. 그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등 장편소설이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주제의식은 이데올로기 전쟁의 잔혹함과 파괴력은 인간의 내면에 가해짐으로써 한층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이 아군과 적군, 가해자와 피해자, 나와 타인, 선과 악의 차이를 무화시킨 동족간의 비극적 전쟁이었음을 깊이 인식케 한다.

그리고 황순원의 전후소설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고 옹호하는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소통시키고 있다. 그는 인본주의 태도로 이데올로기로 인한 전쟁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보편적인 인본주의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였다는 사실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황순원, 전후소설, 이데올로기, 휴머니즘

【中文摘要】

意識形態的對立與人本主義的溝通

— 以黃順元的戰後小說爲中心 —

李浩

黃順元的前期小說大多表現的是對理想世界的嚮往和憧憬，与此不同，他的戰後小說則更多地表現了由于意識形態的對立而爆發的朝鮮戰爭的殘酷性及其對人性的摧殘。本文通過考察黃順元戰後小說對意識形態的認識以及批判性立場，進一步闡述了其作品的人本主義特性。

從本質上來說，朝鮮戰爭是由于意識形態的不同而引發的同族相殘的悲劇。黃順元在其戰後小說中對意識形態保持一定的距離，力圖客觀地表現這場意識形態的戰爭。他的短篇小說主要用對比的手法，通過純朴人們的人性喪失表現戰爭的殘暴，而其長篇小說則集中表現了戰爭對人的精神以及心靈深處造成的傷害，而這比一般的肉體性傷害更具悲劇，在此基礎上，黃順元指出：“朝鮮戰爭是沒有敵我善惡之分、沒有受害者和加害者的歷史悲劇”。

黃順元的戰後小說主張用維護人類尊嚴和價值的人本主義來消除意識形態的對立，他用人本主義的態度批判了意識形態戰爭的非人性以及由此造成的人的異化，力圖以人本主義來戰勝意識形態，這在韓國文學史上具有十分重要的意義。

關鍵詞：黃順元，戰後小說，意識形態，人本主義

【Abstracts】

The ideological opposition and humanistic communication

— Centering around of postwar novels of Huang Sun-won —

Li Hao

Hwang Sun won's earlier works mostly express his ambition and vision for the ideal world. On the contrary, his postwar novels describe the cruelty of Korean war caused by the conflict of ideologies and destruction for humanization. This article will further explain the humanization-oriented feature of Hwang Sun won's postwar novels by investigating its awareness for ideologies. and critical attitude of Hwang Sun won.

In essence, Korean War is a fratricidal tragedy caused by conflict of ideologies. In his postwar novels Hwang Sun won keep a distance from ideologies to try to describe this war of ideologies objectively. His short novels use the method of compare and contrast to express the cruelty of war by describing the lost of humanization of people, while his long novels focus on the mental suffering of people, which is more tragic than normal physical injury. Based on this point, Hwang Sun won brought out with "Korean War is a historical tragedy without good and evil, without injurer and victim".

Postwar novels of Hwang Sun won advocate using humanization, which means human dignity and value to eliminate conflict of ideologies. His humanization-oriented attitude, criticizes the inhumanity of ideological war. His try to use humanization to win ideological war has profound meaning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ey words: Hwang Sun won, Postwar novels, Ideology, Humanization

이 논문은 2015년 6월 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7월 3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